

지리과 서답형 문항의 채점에서 ‘블러핑’ 의 문제

- 블러핑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

장익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서론

일반적으로 서답형 문항은 선택형 문항에 비해 고차적 사고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도 보다 바람직한 평가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해력, 장소감, 지리적 상상력 등 사실-기능-추론을 서로 상관시켜 사고하는 고등 사고력 및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지리 영역의 경우 서답형 문항의 효용성과 활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사안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답형 문항이 보편적인 평가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채점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등 채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쟁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시도되고 있는, 서답형 문항의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들은 추후 우리나라에서 서답형 문항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계에서도 지리과 서답형 문항의 주요 유형에 관한 연구나 서답형 문항의 채점 방법에 대한 연구 등 서답형 문항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탐구되고 있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장익선, 2012; 2013). 본 논문 역시 서답형 문항의 채점에서 매우 중요한 블러핑(bluffing)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그러한 이론적 논의에 참여하려고 한다.

블러핑이란, 서답형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답을 잘 모르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의사(擬似) 답안’, 즉 ‘실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재가 아니라 실재와 유사할 뿐인 답안’과 그 의미가 가까울 것이다. 블러핑의 문제는 채점의 과정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타당할지라도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채점의 과정 및 절차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사 답안을 감지하고 분별해 낼 수 있는, 고도로 훈련받은 채점자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답형 문항의 채점과 관련해 블러핑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다룬 경우는 아직 없어 보인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블러핑의 개념과 주요 유형에 대한 지식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리 교과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블러핑들을 추적하고 유형화하는 구체적 사례 연구가 추후에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러핑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블러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며, 블러핑의 실제 사례 연구, 채점자 훈련의 필요성과 연수 내용 등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요 사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블러핑(bluffing)의 개념과 연구 사례

서답형 문항에 대한 답을 기술할 때 왜 학생들이 블러핑을 행하는가에 대해서는 흔히 자기 방어의 원리로 설명되고 있다(Carson, 1993: 326). 우리는 블러핑을 내재한 답안을 일견 ‘거짓 답안’, ‘사기 답안’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거짓이나 사기의 범주에 포함되기 보다는 아니라, 수험생이 채점자를 염두에 두고 그와의 점수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정의했듯이 블러핑은 일종의 의사 답안으로서, 수험생들이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답안이다.

이런 점에서 ‘블러핑’을 거짓이나 사기 개념과는 차별되는, 일종의 협상 전략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에게 블러핑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고, 그 대신 블러핑의 여러 유형들을 채점자가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대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로 블러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일찍이 192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Fernberger 교수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블러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한 적이 있다(Fernberger, 1927). 그는 한 반을 이루는 29명의 학생들에게 10개의 용어를 던져주고 각 용어에 대해 1쪽 이상씩 작성해보라고 주문하였다. 그는 10개 용어 중 7번째 용어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psychoterminality’라는 가짜 단어를 끼워 넣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다. 총 29명의 학생 중 ‘psychoterminality’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한 학생은 단지 2명뿐이었기 때문이다. 7명은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는 식으로 소극적인 대답을 보였다. 나머지 21명의 학생들은 최하 반쪽 분량에서 최대 3쪽에 이르기까지 블러핑 전략을 구사하였다.

신시내티 대학교의 Thelin 교수와 Scott 교수 역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블러핑에 관한 실험 연구를 하였다(Thelin and Scott, 1928). 연구 결과, 모든 대학생들이 블러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생마다 블러핑의 정도는 5%에서 81%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평균 블러핑율(percent of bluffing)¹⁾은 44.6%였다. 이 수치는 답지의 내용 중 평균 44.5%는 의사 답안이라는 뜻이다. 실험 대상 학생 수의 절반이 46.58% 이상의 블러핑율을 보였고, 1/4은 60.97%의 블러핑율을 나타냈다. Thelin과 Scott 교수는 대학생이 아닌 세탁소 직원, 점원, 장부 계원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도 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일반인들의 평균 블러핑율은 대학생에 비해 훨씬 낮은 25.7%로 나타났다. 요컨대 일반인들보다 대학생들이 블러핑을 더 많이 구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연령과 블러핑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학 1학년의 블러핑율은 50.9%, 2학년은 40.3%, 3학년은 45.4%, 4학년은 39.4%로서, 연령과 블러핑의 관계가 뚜렷한

1) Thelin과 Scott 교수는 각각의 서답형 답안 내용 중 블러핑이 내재한 정도를 통계화하여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이것을 블러핑율(percent of bluffing)이라 한다. 가령 블러핑율 100%란 답지 내용 전체가 의사 답안이라는 뜻이고, 블러핑율 0%란 답지 내용 중 블러핑이 한 부분도 없는 진실된 답안이라는 뜻이다.

상관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볼 때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블러핑율이 높았다. 성별과 블러핑의 관계도 제시되었다. 1학년에서는 남학생의 블러핑율 63.1%, 여학생의 블러핑율 38.6%, 2학년에서는 남학생 34.7%, 여학생 46.0%, 3학년에서는 남학생 44.8%, 여학생 46.0%, 4학년에서는 남학생 39.2%, 여학생 39.9%로, 1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블러핑율이 여학생보다 크게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성적과 블러핑의 관계에서는 최고 성적을 보이는 집단에서 블러핑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고, 지적 수준과 블러핑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적 수준이 최고인 집단의 블러핑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지적 수준이 최하인 집단의 블러핑율도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블러핑에 관한 사례 연구는 경제학이나 윤리학 분야에서는 여러 편 찾아볼 수 있지만 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1920년대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Fernberger와 Thelin, Scott의 연구는 비록 오래 전의 연구이긴 하지만 블러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례 연구들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블러핑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채점의 범주를 넘어, 학생들의 연령과 성별, 지적 수준 등 학습자의 서답 태도와 학습 스타일에 대한 연구 범주까지 확장될 수 주제임을 시사한다.

Ⅲ. 블러핑의 주요 유형과 사례

그러면 블러핑의 주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구자는 서답형 문항에 대한 기존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블러핑의 가능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명명해 보았다. 물론 이들 유형은 추후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탐구와 함께, 지리교육 영역에서 다루는 고유한 콘텐츠 및 사고력을 고려하여 보다 지리교육-특수적인 블러핑의 유형들에 대한 연구로 보완이 필요하다.

1, 발문의 반복 서술형

발문에 제시된 용어와 표현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만 바꿔' 재활용하면서 발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서술 유형이다. 그럼으로써 마치 해당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만든다. 이러한 인상 때문에 채점자는 실제 답안 내용에 비해 점수를 후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지리 조사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서답형 문항이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발문의 반복 서술형'의 블러핑을 구사하는 학생이라면 '지리학에서 지리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지리 조사 방법을 모르는 지리학자는 상상하기도 힘들다'와 같이 발문 내용을 반복 서술하며 그럴 듯한 내용을 답지로 만드는 식이다.

2. 기존 지식 편중형

이 유형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그것들을 중심으로 답지를 채우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지역과 경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항이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기존 지식 편중형’의 블러핑을 구사하는 학생이라면, 지역과 경관 개념 중 잘 모르는 것은 간단히 서술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비중 있게 서술하는 식으로 답지를 채우게 된다. 심지어, 해당 학생이 둘 중 어느 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만 지나치게 상세할 정도로 다루면서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식으로 짧게 마무리할 것이다.

3. 추상적 개념 활용형

이 유형은 자기가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핵심 개념이나 기본 개념들을’ 적절히 섞어서 서술하는 유형이다. 가령 <지리적 사고의 주요 방식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문항이 있다고 해보자. 이 유형의 블러핑을 구사하는 학생이라면, ‘지리적 사고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지표에는 다양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조화로운 것이다.’라는 답지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의 답지에 서술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다양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조화로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매우 추상적인 용어의 나열에 불과하며 뚜렷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답지를 추상적 개념 활용형이라 할 수 있다.

4. 체점자 공감 유도형

이 유형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그럴듯하게’ 서술함으로써 체점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체점자의 신념을 역이용하는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체점자로 하여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유형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 논의하시오>라는 문항이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 유형에 속한 학생이라면 ‘도시 내부에는 다양한 지대가 펼쳐진다. 각 지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도시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와 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이라 서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체점자는 학생의 서술에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실 해당 학생은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라는 단어를 언급하되 엉뚱한 방향으로, 하지만 그럴 듯한 느낌을 주도록 답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IV. 토의: 몇 가지 논의점

1. 우리나라에서 서답형 문항 적용의 현 실태와 채점의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의 문제
2. 서답형 문항 채점의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블러핑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의
3. 교과별 블러핑의 주요 유형과 사례 연구의 필요성: 소위 '교과-특수적 블러핑' 연구
4. 블러핑의 감지 및 인식을 위한 채점자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 메뉴얼
5. 블러핑 논의와 관련될 수 있는 파생적 연구 주제들
 - 블러핑과 학령/성별의 관계
 - 블러핑과 학습 성적/지적 수준의 관계
 - 블러핑과 학생의 학습 스타일의 관계 등

참고문헌

- 장의선, 2012, “지리과 서답형 문항의 주요 유형에 관한 연구 - NAEP의 지리과 4학년 문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7(6), pp.934-954.
- 장의선, 2013, “지리과 서답형 문항의 채점 및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 NAEP 4학년 서답형 답안의 채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Fernberger, S. W., 1927, On Bluffing in Examin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38, No. 1, pp.155-156
- Thelin E. and Scott P., 1928, An Investigation of Bluff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40, No. 4, pp.613-619.
- Carson, T., 1993, Second Thoughts about Bluffing, Business Ethics Quarterly, Vol. 3, Issue 4, pp.317-341.
- Terrence, T., 1990, Hiding from Teacher, Education Digest, Vol. 56, Issue 2, p.29.
- Smith L., 1985, Teacher Clarifying Behaviors: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and Perception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 53, No. 3, pp.162-169.
- C. Keith Waugh and Norman E. Gronlund, 2013, Assessment of Student Achievement 10ed, Pearson: New Jersey.